

김학범호 '최고의 대진운'...뉴질랜드·온두라스·루마니아와 대결



9년 만에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가 오는 7월 도쿄올림픽에서 뉴질랜드, 온두라스, 루마니아와 토너먼트 진출을 다룬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남

자 축구대표팀이 21일 오후 5시(한국 시간) 스위스 취리히 국제축구연맹(FIFA) 본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조 추첨 결과, 뉴질랜드, 온두라스, 루마니아와 B조에서 경쟁하게 됐다.

스페인, 멕시코, 독일 등 강호들을 모두 피했다. 당초 최상의 시나리오로 기대했던 조 편성이 이뤄졌다. 첫 상대는 FIFA 랭킹 122위의 뉴질랜드다. 7월22일 오후 5시 가시마의

독일·스페인 등 전통 강호 모두 피해

오는 7월22일 뉴질랜드와 1차전 가져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대결한다.

23세 이하(U-23) 연령대에서 세 차례 만나 모두 승리했다. 올림픽에선 만남 적이 없다.

이어 25일 오후 8시 같은 장소에서 루마니아(43위)와 2차전을 갖는다.

결그러운 유럽 국가이지만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과 비교하면 수월한 상대로 평가받는다.

이 연령대 대표팀의 대결은 없었다. 참고로 A매치 상대전적은 1전 1패, 20세 이하(U-20) 대표팀은 2전 1무1패를 기록했다.

조별리그 최종전 상대는 온두라스(67위)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8강전에서 한국에 패배를 안겼던

팀으로 김학범호가 설욕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올림픽 대표팀의 상대전적은 한국이 2승1무1패로 근소하게 앞선다.

온두라스는 28일 오후 5시30분 요코하마의 요코하마 국립경기장에서 상대한다.

세 국가 모두 한국(39위)보다 랭킹이 뒤진다. 한국은 흥명보현 울산 현대 감독)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2012 런던올림픽에서 개최국 영국과 속적 일본 등을 꺾고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선 8강에 진출했다.

16개국이 참가하는 남자 축구는 4

◇2020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조 편성

- ▲A조 =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프랑스
- ▲B조 = 한국, 뉴질랜드, 온두라스, 루마니아
- ▲C조 =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집트, 호주
- ▲D조 = 브라질, 독일, 코트디부아르, 사우디아라비아

개조로 나누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각 조 2위까지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해 이

나무다리 승부를 펼친다. 9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한국이 8강에 오르면 A조 국가와 대결하게 된다. 속명의 한일전이 성사될 수 있다. 뉴스

김광현, 내일 신시내티전 출격...시즌 첫 승 재도전

허리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서 개막 맞아...첫 등판 아쉬워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뛰는 김광현이 신시내티 레즈를 제물로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세인트루이스는 24일 오전 9시15분(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신시내티전 선발 투수로 김광현을 예고했다.

허리 통증으로 부상자명단(IL)에서

개막을 맞이한 김광현은 지난 18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 첫 등판해 3이닝 5피안타 4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시즌 첫 출격의 부담 때문인지 투구 내용은 기대에 못 미쳤다.

예정대로 신시내티전을 소화하면 김광현은 5일 휴식 후 다시 마운드에서 서게 된다.

김광현은 신시내티전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지난해 8월 23일 6이

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MLB 데뷔 첫 승을 거둔 상대가 바로 신시내티다. 9월2일에는 5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또 한 번 승리를 맛봤다.

지난 시즌 전체 3승 중 2승을 챙겼을 정도로 김광현을 신시내티에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11이닝 동안 평균자책점은 '0'이다.

필라델피아전에서 68개의 공을 던진 김광현은 신시내티전에서는 좀 더 많은 투구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

류현진, 4일 휴식 후 등판...26일 탬파베이서 2승 도전

최저만 부상자 명단으로 '동산고 맞대결'은 불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이 시즌 2승 사냥에 나선다.

류현진은 오는 26일(한국시간) 오전 2시 10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리는 '2021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등판한다.

4일 쉬고 마운드에 오르는 류현진은 최근 경기에서 부진을 만회한다는 각

오를 보이고 있다. 류현진은 지난 21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등판, 5이닝 8피안타(1피홈런) 2탈삼진 4실점으로 시즌 2패째(1승)를 당했다.

이날 류현진의 출발은 좋았지만, 제구력이 흔들리면서 보스턴 강타자들에게 수 차례 장타를 허용했다. 1점대

평균자책점도 3.00으로 높아졌다.

류현진은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공이 가운데로 몰렸다면서 부진을 설명했다.

탬파베이는 류현진의 동산고 후배 최저만이 뛰고 있는 구단이다. 하지만 류현진과 최저만의 대결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최저만은 무릎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탬파베이는 지난해 월드시리즈에 오른 강팀이다. 탬파베이는 21일 현재 10승 8패를 기록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2위를 달리고 있다.

조이 웨들이 탬파베이 타자 중 가장 높은 타율(0.356)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스틴 메도우즈는 4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타선을 이끌고 있다.

탬파베이 팀타율은 0.234로 비교적 낮지만, 팀 홈런은 21개로 많은 편이다.

류현진은 지난해 정규리그에서 탬파베이와 두 차례 만났다.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3.72를 기록했다. 그러나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시리즈에서는 탬파베이에 1%이닝 8피안타(2피홈런) 7실점(3자책점)으로 난타를 당했다.

팀 민지, 컬링 그랜드슬램 대회 초반 2연승

춘천시청 여자 컬링 팀 민지(김민지·하승연·김혜린·양태아·김수진)가 세계컬링연맹(WCF) 그랜드슬램 대회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초반 2연승에 성공했다.

팀 민지는 22일(한국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열린 2021 컬링 그랜드슬램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여자부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팀 피터슨(미국)을 7-4로 제압했다.

1차전에서 캐나다의 팀 플뢰리를 9-3으로 꺾은 팀 민지는 2연승으로 A조 선두에 올랐다.

팀 민지는 1연승에서 1점을 내렸지

만 2연승과 3연승에서 각각 1점과 2점을 얻었다. 3-2로 맞이한 5연승에서 2점을 추가해 격차를 벌린 팀 민지는 7연승과 8연승에서 1점씩을 보태 승리를 확정했다.

그랜드슬램 대회는 세계랭킹 상위 12개팀만 출전 가능하다. 팀 민지는 세계랭킹 11위 자격으로 일정을 소화 중이다.

12개팀이 두 개조로 나누어 조별리그를 치러 살아남은 상위 6개팀이 플레이오프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팀 김스킵 김은정, 리드 김선영, 서



드 경기에서, 세컨드 김초희, 후보 김영미)은 이번 대회에 불참했다.

팀김은 오는 30일부터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진행되는 2021 세계컬링연맹(WCF) 세계여자컬링선수권 대회에 출전한다.

이 대회에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 6장이 걸려있다. 뉴스

팀내 타율 출루장타 1위 "KIA 타자들, 김선빈 배워라"

개막 이후 13경기서 53타수 18안타 타율 0.340



'김선빈을 배워라.'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선빈(31)이 우등생 타격을 하고 있다. 팀 주전타자들이 2할대의 부진한 타격에 빠져있지만, 김선빈만이 오랫동안 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료들에게 "타격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이라는 교본이나 다름없다. 목표인 2루수 골든글러브를 향해 힘찬 출발을 했다.

김선빈은 개막 이후 13경기에서 53타수 18안타, 타율 3할4푼을 기록 중이다.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다. 볼넷 8개를 골라내는 등 선구안을 과시하며 출루율 4할3푼5리에 이른다. 리드오프 최원준을 월

등하게 앞서는 출루율이다. 1번타자 같은 2번타자라고 볼 수 있다. 8타점은 최원준에 이어 팀내 2위이다. 장타율도 4할1푼5리를 기록 중이다. 나란히 2할대의 장타율에 그친 클린업트리오 터커,최형우,나지완보다 훨씬 웃돌고 있다. 홈런은 없지만 2루타를 4개를 터트렸다. 특히 62타석에서 삼진은 5개에 불과하다. 선구안이 그만큼 뛰어나다.

작년에도 타율 3할3푼, 출루율 4할6리를 기록했다. 세 번에 걸친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85경기 출전에 그친 것이 팀에게는 뼈아팠다. 올해는 겨우내 착실한 훈련을

통해 풀타임으로 출전하고 있다. 주전 유격수 출신인 만큼 2루 수비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팀내에서 규정타석 기준으로 유일한 3할 타자이다. 클린업트리오는 아직 제 스윙을 못하고 있다. 최원준과 유지혁도 개막 초반 활발한 타격을 했으나 부진에 빠졌다. 규정타석을 채우지 못한 이창진이 3할8푼5리, 김민식 3할8리로 하위타선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

김선빈의 스윙은 물 흐르는 듯이 자연스럽다. 코스에 관계없이 잘 밀어치고 컨택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하지 못한 변화구가 들어오더라도 순간 대응 능력도 보여주고 있다. 볼을 골라내는 선구안도 뛰어나다. 필요할 때 장타도 생산하고 있다. 2017년 타격왕의 면모를 다시 보여주었고 있다.

KIA는 득점력이 신통치 않다. 그나마 김선빈이 타격으로 위안을 안겨주고 있다. 변수는 부상 재발이지만, 잘하면 2017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도 있다. 김선빈은 개막을 앞두고 2루수 골든글러브를 목표 내걸었다. KBO 출범 이후 유격수와 2루수 골든글러브를 두 개를 움켜쥔 수상자는 없었다. 김선빈이 새 역사를 쓸 것인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손흥민, 카라바오컵 우승 겨냥 "팬들 위해 싸우겠다"

사우샘프턴전 결승골

시즌 리그 최다 15호골

극적인 결승골로 자신의 한 시즌 리그 최다 15호골 기록을 세운 손흥민(토트넘)이 카라바오컵 우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손흥민은 22일(한국)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순연 29라운드에서 후반 막판 페널티킥으로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 19일 조세 무리뉴 감독이 전격 경질된 이후 첫 경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이끈 결승골이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15번째 골로 2016-2017시즌 세운 개인 리그 최다 14골을 경신했다. 각종 대회를 통틀어 20호골이다.

손흥민은 "반면에 끌려가면서 실망했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후반에 나아가자고 했고, 후반에는 매우 좋았다. 승점 3점을 딸 자격이 있었

다"고 했다. 비디오 판독(VAR)이 토트넘과 손흥민을 들었다뺐다한 경기였다.

손흥민은 1-1로 팽팽한 후반 29분 페널티박스에서 왼발슛으로 역전골을 터뜨렸지만 VAR 끝에 골을 인정받지 못했다. 슛을 시도하는 순간 수비수 뒤에 있던 모우라가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후반 43분 페널티박스 라인 위에서 상대 반칙으로 프리킥을 얻었다가 VAR를 통해 페널티킥으로 수정됐다. 손흥민이 키커로 나서 골문 오른쪽을 노려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노골 선언에 대해 "정말 실망했다"면서도 "판정에 불만만 표현할 순 없다.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일이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오는 26일 맨체스터 시티와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치른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에서 모두 탈락한 토트넘이 유일하게 도전할 수 있는 트로피다.



손흥민이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9라운드 사우샘프턴과의 순연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45분 PK 결승골을 넣고 있다.

손흥민은 "선수들도 결승전에 떨 자적이 있지만 팬들이 더 자격이 있다. 잘 회복해서 결승전을 치를 것이다. 팬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